



연패 잇고 연승 잇자

KIA, 삼성과 시즌 첫 대결...김도현 선발
'경기없는 화요일' 차분한 분위기 속 훈련
'무릎 부상' 박찬호 5일 잠실 LG전 복귀

KIA 타이거즈 야수진이 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이범호 감독과 미팅을 하고 있다.

토트넘-아스널 7월 31일 홍콩서 '북런던 데비'

'홍명보호 캡틴' 손흥민이 활약하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가 역대 처음으로 해외에서 아스널과 '북런던 데비'를 펼친다. 장소는 홍콩이다.
토트넘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5-2026시즌 준비 차원에서 7월 31일 홍콩에서 아스널과 대결한다"며 "이번 경기는 영국 밖에서 열리는 첫 '북런던 데비'다. 2025 홍콩 풋볼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홍콩의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했다.

런던 북부를 연고로 둔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데비'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라이벌전을 꼽을 때 첫손에 들어간다.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은 북런던 데비에서 유독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다.
손흥민은 아스널과 통산 22경기를 치러 9골 2도움의 맹위를 떨치며 '아스널 킬러'라는 별명을 얻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2025 홍콩 풋볼 페스티벌"에는 토트넘과 아스널을

비롯해 리버풀(잉글랜드)과 AC밀란(이탈리아)도 참가한다.
리버풀과 AC밀란의 대결도 7월 26일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펼쳐진다.
두 팀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에서 두 차례(2004-2005시즌, 2006-2007시즌) 맞붙었다.
2005년 결승에서는 리버풀이 연장 혈투 끝에 3-3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2로 이겨 우승했고, 2007년 결승에서는 AC밀란이 필리포 인차기의 멀티골을 앞세워 2-1로 승리하며 챔피언에 올랐다. /연합뉴스



광주기아챔스필드 경기장 안팎 긴급 안전 점검

KIA가 김도현으로 연습 잇기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는 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시즌 첫 맞대결을 갖는다.

창원 NC파크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1일 KBO가 멈추면서 KIA는 이날 차분한 분위기에서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주 카움 히어로즈와 한화 이글스와의 6연전에서 2승 4패에 그쳤던 이범호 감독은 직접 선수단 앞에 서서 주루-수비 등 야수진의 세밀한 플레이를 주문했다.

KIA는 지난주 불펜진의 사사구와 야수진의 실수 연발로 뒷심 싸움에서 밀리면서 연달아 루징시리즈를 기록했었다.

손승락 수석코치가 배팅 투수로 나서 수비 훈련을 진행하는 등 KIA는 세밀한 플레이를 위한 훈련에 집중했다. 훈련을 통해 재정비 시간을 가진 KIA는 선발진에 변화를 주고 본격적인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1일 등판을 준비했던 윤영철을 대신해 2일 김도현이 삼성과의 1차전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윤영철은 한 차례 등판을 건너뛰고 6일 LG와의 원정 경기 선발로 나선다.

삼성은 선발진 변화 없이 1일 선발 예고했던 최원태를 하루 밀어 2일 마운드에 올린다.

이범호 감독은 '로테이션'을 이유로 들었다. KIA는 내일-양현종-올라-윤영철-김도현으로 선

발 로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 밀어 윤영철부터 로테이션이 돌아가면 내일-양현종-올라로 LG전을 전개할 수 있다. 대신 다음 주에 윤영철이 화요일과 일요일 두 경기에 나와 4일전을 소화해야 한다.

이범호 감독은 첫 등판에서 밸런스 문제를 노출했던 윤영철을 등판을 조정해 마운드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기로 한 것이다.

'로테이션'으로 마운드 힘을 극대화해 나선 이범호 감독에는 타선의 반가운 움직임도 있다.

지난 25일 카움과의 홈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박찬호가 이날 이범호 감독이 보는 앞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무릎 보호대를 차고 수비 훈련 등을 소화했던 박찬호는 배팅 게이지에서 담장 넘어가는 타구를 선보이기도 하는 등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다.

부상 이후 움직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이범호 감독은 박찬호의 잠실행을 예고했다. 지난 26일 엔트리에서 말소됐었던 박찬호는 오는 5일 엔트리 재등록이 가능하다.

몸 상태에 이상이 없는 만큼 박찬호는 잠실 LG전을 통해 그라운드로 복귀할 예정이다.

차분하게 그라운드 전력을 점검하고 세밀한 부분을 가다듬는 KIA는 이날 안전한 관람석을 위해서도 바쁘게 움직였다.

이날 챔피언스필드 안팎에서 경기장 안전 점검이 진행됐다. KIA는 매일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혹시 모를 안전 사고에 대비해 외부 구조물부터 경기장 좌석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경기장을 살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가 1일 챔피언스필드 안전점검에 나서 외부 구조물을 확인하고 있다.

'아챔 8강' 광주FC, 등록 선수가 고작...

평균보다 낮은 36명...올 시즌 K리그 990명 등록

올 시즌 990명의 선수가 K리그에서 땀을 흘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하나은행 K리그 2025' 경기 선수등록 마감 결과 올 시즌 등록 선수는 K리그1 483명, K리그2 507명 등 총 990명이다. 이는 등록 절차가 완료된 선수 989명과 등록 기간 내 국제이적확인서(ITC) 발급 신청이 완료된 선수 1명을 합한 숫자로 지난해 935명보다 55명 증가했다. 화성FC가 K리그2에 가세하면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등록 선수 중 국내 선수는 883명, 외국인 선수는 10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경기 등록 기간과 비교하면 국내 선수는 49명, 외국인 선수는 5명 늘었다.

K리그1 12개 구단의 평균 등록 선수는 40.3명이었다. 지난해 40.7명보다 근소하게 감소했다.

전북이 가장 많은 52명(ITC 발급 신청 완료 선수 포함)을 보유하고 있고, 강원과 대구가 4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광주는 36명으로 평균 등록 선수보다 적었다. 가장 적은 선수를 등록한 K리그1 구단은 '승격팀' FC안양으로 34명이다.

K리그2 14개 구단의 평균 등록 선수는 36.2명으로 지난해 34.3명보다 1.9명 증가했다.

충남아산이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천안시FC 41명, 전남드래곤즈 40명 순이었다. 서울이랜드와 성남FC는 31명으로 등록 선수가 가장 적었다.

22세 이하(U22) 자원은 K리그1 189명, K리그2 189명 등 총 378명이다. 지난해 대비 98명이 늘었다.

K리그1은 2021년, K리그2는 2022년부터 U22 국내 선수 출전에 따라 교체 카드를 최대 5장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이후 U22 등록 선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U22 선수를 가장 많이 등록한 구단은 K리그1의 전북으로 전체 52명 중 23명이 22세 이하 선수다. 이어 K리그2 부산아이파크, 수원삼성, 안산그리너스가 13명의 U22 선수를 등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 유스 출신 선수는 K리그1 188명, K리그2 176명 등 364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8명이 늘었다.

자 구단 유스 출신 선수가 가장 많은 구단 역시 전북으로 16명이 유스 시스템을 거쳤다.

준프로 계약을 통해 K리그에서 뛰는 '고교생 K리그'는 광주 김윤호를 비롯해 김수형-이한결-한석진(이상 전북), 김현우(대전), 백경(수원FC), 정성빈(울산), 신준서(경남) 등 총 8명이다.

지난해 준프로 계약 선수로 활약했던 강민우(울산), 강주혁(서울), 진태호(전북), 박승수(수원) 등 14명은 올해 정식 프로선수로 등록됐다.

준프로 계약 선수는 시즌 중에도 구단별로 최대 5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올해 등록 선수 평균 연령은 K리그1 25.9세, K리그2 26.2세다. 가장 젊은 K리그1 팀은 수원FC로 24.3세였다. K리그2에서는 안산이 24.4세로 가장 젊다.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팀은 K리그1 안양(28.1세), K리그2 천안(27.7세)이다.

전체 등록 외국인 선수는 K리그1 56명(평균 5.1명), K리그2 51명(평균 3.6명) 등 총 107명이다. 지난해에는 K리그1 58명(평균 5.3명), K리그2 44명(평균 3.4명) 등 총 102명이었다.

K리그1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브라질 국적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크로아티아(3명), 가나·스웨덴·이탈리아·일본·호주(이상 2명) 순이었다. K리그2 최다 국적도 브라질로 총 36명이다. 이어 스웨덴·일본·콜롬비아·호주(이상 3명),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포르투갈(이상 2명) 순이다.

한편 기존 아시아 쿼터와 동남아시아 쿼터가 모두 폐지되면서 K리그 외국인 선수는 국적과 무관하게 ▲K리그1 최대 6명 등록에 4명 동시 출장 ▲K리그2 최대 5명 등록에 4명 동시 출장이 가능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